

일본에서의 첫 자취생활

大学名 건국대학교
あなたの・名前 정서연

일본에 오기 전,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일본어 실력도 문화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자취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요리, 빨래, 청소를 모두 혼자 해야 하고, 전입신고나 공과금 납부 같은 행정적인 절차까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첫날 밤, 안내 메일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탓에 침구를 대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개도 없이 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일본에 와서 가장 막막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읽는 여러분은 대학에서 보내는 메일들을 꼭 빠르게 꼼꼼히 확인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자취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척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귀찮게만 느껴졌던 집안일도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냈던 기숙사인 오토와칸은 시설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했습니다. 방 안에는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 요리하기에도 정말 좋았습니다. 덕분에 기숙사에서는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은 것 같습니다. 일본 마트에는 1인분으로 작게 판매하는 식재료도 많고 가격도 한국보다 저렴한데다 할인도 많아서 이것저것 해먹기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전혀 요리에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좀 흥미를 붙였습니다.



오토와칸도 시설이 진짜 좋고 보안도 잘돼있어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도와주셨던 관리실
직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이번 유학 생활을 통해 일본어 실력이 늘고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좋았지만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게 가장 가치있는
경험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습니다.